

으로 판정하고 피부유형별 신체계측, 체성분 구성, 비만정도, 체형 및 스트레스정도의 차이는 SPSS11.0 (for 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피부유형은 중성>건성>지성 피부의 순으로서 젊은 여성은 중성피부유형 즉, 정상피부가 가장 많았다.
- 2) 체격지수 중에서 WHR가 낮으면 지성피부가 증가하고 반대로 높으면 건성피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가족 중에 비만자가 있는 경우는 건성/정상피부군에 비해 지성피부군에서 많았고, 특히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3) 스트레스 점수가 높으면 중성피부보다는 건성/지성피부의 비율이 높았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20세 정도의 여성은 대부분이 건강피부인 중성피부이지만 WHR가 크고, 어머니가 비만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크면 건성피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결과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중성피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을 더多く, 연령층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연령층별 피부유형과 신체계측치나 스트레스정도의 관련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P1-20】

고지혈증 중년 남성의 영양소 섭취상태와 생활습관

최 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사망자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우리나라가 식생활의 변화로 질병의 양상과 사망원인이 변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질병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장순환기계질환의 위험인자 중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신체활동 부족 등이 중요 인자로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 평균 연령 46 ± 3.4 세의 성인 남성 중 공복의 혈 중 콜레스테롤이 200 mg/dl 혹은 중성지방이 200 mg/dl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사람을 고지혈증으로 간주한 43명과 그 이하인 정상인 76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상태와 운동습관 및 식습관을 조사하여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상 성인 남성의 평균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166.4 mg/dl와 111 mg/dl였고 고지혈증 성인남자의 평균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219 mg/dl와 229 mg/dl였다. 정상 혈 중 지질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고지혈증인 사람은 체중(66 kg vs 62 kg), BMI (23.5 vs 21.8), RBW (108 vs 100), 수축기 혈압(124 mmHg vs 117 mmHg), 이완기 혈압(81.2 vs 74.9 mmHg)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혈당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평균 일일 영양소 섭취에서 정상과 고지혈증 성인 남자와 모두 열량, 칼슘, 비타민 B1, B2를 RDA 보다 부족 되게 섭취하였고 그 외의 영양소는 RDA 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고지혈증 성인 남성과 정상남성이 각각 2305 kcal와 2171 kcal로 나타나 고지혈증인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지혈증인 사람들 중 BMI 25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25이상의 경우가 43%로서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BMI 25 이하인 경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234 mg/dl vs 215 mg/dl) (259 mg/dl vs 214 mg/dl) HDL-cholesterol의 농도는(48 mg/dl vs 43 mg/dl) 차이가 없어서 심장질환의 위험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열량의 섭취량은 BMI 25 이상인 경우 유의적으로 높았고(2304 kcal vs 2010 kcal),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유의적으로 낮아(2184 kcal vs 3525 kcal) 체중 감량의 교육이 요구되어지며 동시에 운동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비의 증진이 요구되어진다. 생활습관에서 고지혈증 환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알코올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장려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P1-21】

여성 유방암 환자의 영양섭취 실태와 생활습관조사

김미현[†] · 김은영 · 천누리 · 홍영선¹⁾ · 전해명²⁾ · 승정자 ·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모병원 종양내과¹⁾, 성모병원 일반외과²⁾

유방암은 아시아나 남·동부 유럽에 비하여 서구 국가에서 발생 빈도와 사망률이 높아 western disease로 분류되는